

2020학년도 수시모집 모의 논술고사[인문사회계열]

[문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공자와 제자의 대화가 담긴 “논어”의 ‘자로편’에는 톨레랑스와 유사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화(和)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이며 질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同)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 가치만을 용인하는 것으로 지배와 흡수 합병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이불화(同而不和)가 아니라 화이부동의 자세라는 것이다.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지만 함께할 줄 알고 소인은 끼리끼리 놀 뿐 함께할 줄 모른다. 남과 사이 좋게 지내되 의(義)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으로, 곧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을 의미한다.

- 유명만, 상상하여 창조하라

(나)

옳은 방법이란 우리 선조가 사용했고 지금은 우리에게 전승된 방법이다. 전통은 그러한 방법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와 같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옳음에 대한 관념은 관습적이라서 관습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기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위를 판단받지도 않는다. 관습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옳다. 왜냐하면 관습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섬너, 인간의 관습

(다)

프로타고라스는 똑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고 선악의 가치 판단도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극단적 회의주의자인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한다 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여기서 세 번째 명제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단어를 전달하지만, 단어란 단지 상징이나 기호에 불과하며 사물 자체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확신한 것은 믿을 만한 지식, 더 나아가 확실한 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라)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웁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 하종오, 원어(原語)

【문제 1-1】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문제 1-2】

【문제 1-1】의 평가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작중 화자의 인식 변화를 설명하시오. (250자 내외) [50점]

[문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빈곤의 이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입장과 빈곤은 사회의 구조적 힘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각각 ‘희생자 비난하기’와 ‘시스템 비난하기’로 불리기도 한다.

먼저 가난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가난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첫 번째 입장은 역사가 오래 되었다. 19세기 영국의 구빈원과 같이 빈곤 문제를 다루던 초기의 노력에는 개인의 모자람이나 병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이므로 성공한 자는 그럴 만하니까, 실패한 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다.

한편 빈곤을 설명하는 두 번째 입장은 빈곤을 창출해내는 사회적 과정을 강조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계급이나 성, 인종, 지위, 교육 등의 사회구조적 힘이 자원 배분방식을 결정한다. 결국 개인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가난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 창업 축제’에서 온라인 백과사전의 창업자 지미 웨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공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혁신, 기업이 정신을 위해서는 무한정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1966년 미국 앨라배마에서 태어난 지미 웨일스는 1999년까지 잘 나가는 금융 상품 운용가였으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1996년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으나 실패하였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창업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또 실패였다. 1999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보면서 좀 더 저렴하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백과사전을 주자.”라는 취지로 ‘누피디아’라는 백과사전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결과는 역시 실패였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2001년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전을 꾸미고, 독자 기부금만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백과사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허황된 꿈을 좇는 몽상가로 취급하였다. 10년이 흐른 후, 세계 백과사전의 대명사인 브리태니커는 백과사전을 더 이상 출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다)

‘유리 천장’이란, 미국의 한 경제 주간지가 1980년대 중반의 미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 차별과 인종 차별을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는 ‘능력 있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 출신자들이 ‘올라갈 곳’, 즉 고위 직위는 흔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한 천장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머리가 부딪히고 만다.’라는 승진·임용상의 신분적 차별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 현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미국 정부는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해 1991년 이른바 ‘유리천장위원회(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치하였다.

(라)

1997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고, 연 매출 80억 달러에 360여 개 회사로 구성된 버진 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영국의 저명한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이 전과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전 직원의 10%까지 늘려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베트남전 반전 운동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에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한 민간단체의 초청으로 호주 멜버른의 교도소에서 일일 감옥 체험을 한 후에는 전과자를 채용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교도소를 나선 뒤 전과자라는 이유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지내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돌아왔다.”라는 한 전과자의 말을 듣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버진 그룹에 채용된 전과자 173명의 재범률은 5%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출소자의 3분의 2가 2년 이내에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이다.

(마)

공자는 사회 혼란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람이 본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문제 2】

제시문 (나), (다), (라), (마) 중 제시문 (가)의 ‘시스템 비난하기’ 관점에 가까운 사례를 모두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자 내외) **[100점]**